

플라스틱 공장 화재 1억원 피해

플라스틱 사출기업 PNE ... 40여분만에 진화 인명피해는 없어

11월11일 오전 7시35분경 경기도 김포 소재 플라스틱 사출기업인 PNE에서 화재가 발생했다.

화재로 공장 1층 200㎡와 공장 내부 기계설비가 탔으며, 김포소방서는 9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
화재는 4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출근 전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김포경찰서와 김포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1/11>